

여자대학 기숙사생들의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연구

정 수 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I. 연구목적

1. 연구목적

사회복지개입 방법중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의 생활모델(life model)은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로 보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transaction)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을 조력한다.(Carel. B. Germain & Alex Gitterman, 1999:848- 858) 특히 전환기(transitional period)는 성장의 기회이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대학진학은 생활의 전환기로서 이때 다른 지역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익숙한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나 지역 친구들과 같은 친밀한 대인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감소된 상태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익숙한 지역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신입생들에 비해 보다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모의 과도하거나 자잘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재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신입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특히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가 어떤지 하는 질문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구성해 가며, 보다 만족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즉 기숙사에 거주하는 신입생들이 구체적인 일상생활 경험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타지역으로 진학한 신입생들이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지 하는 학생복지증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한계는 생활모델에 입각하였으나 만족감에 영향을 크게 주는 물리적 환경, 음식, 규칙등은 포함하지 못하고 주로 관계, 심리사회적 측면에 초점이 두어져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것이다.

2. 연구질문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가? 1)가족 주로 부모님과과는 어떤가? 2)친구들과는 어떤가?

3. 선행연구

대학 기숙사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많았다. 식단이나 주거 환경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교육 또는 학생복지의 측면에서 대학기숙사 생활에 대한 연구들로는 이종숙(1986), 이명환(1995), 조명희(2003), 조명희.김정숙(2005) 등의 연구가 있었다. 대학기숙사 생활의 만족은 주거환경이나 식단이나 점호시간 같은 규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경험자들의 입장에서(emic perspective) 기숙사 생활경험을 연구한 질적 연구로서 최귀순(1997)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겪는 내적 경험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나의 관심은 학생복지(student well being)의 증진과 관련시켜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II. 연구방법

위와 같은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이란 일상생활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emic perspective)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Janice M Morse & Peggy Anne Field 신경림 역 1995: 43)

학생복지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기숙사거주 신입생들의 경험과 문제를 알아보는데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질적 연구방법이 인간존중이란 사회복지 개입의 기본철학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은 경험을 겪는 사람이나 경험이 어떤 외부적 잣대에 따라 평가되거나 라벨링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에서(normalization), 범주로 분류되거나 잘못 이해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그리고 나름의 문제정의와 해결책이 존중되는 것에서 느껴진다. 이것은 그동안 사회복지관계원칙을 통해 실천되어 왔는데 철학적으로는 문제란 당사자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이고 그 해결도 또한 당사자들이 해결이라고 보는 상태가 해결이라는 경험의 주관성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관점 또는 구성주의적 관점이나 다양함의 공존을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적

사고방식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문제나 그 해결책에 단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그 기준이 외부에 있다고 보던 (etic perspective) 전문가적 관점이나 실증적 관점과 비교된다. 그런데 어떤 경험을 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대부분의 인간 경험들이란 다차원적인 환경적 맥락을 고려해서 자세히 살펴볼 때 간주관성(inter subjectiveness)에 의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서 특정집단이 느끼는 문제와 그 해결방법은 그 특정 시대, 연령, 지역,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특정 집단의 문제와 그들에게 맞는 해결책은 생활속에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단편적이고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서 가장 잘 이해되고 파악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적 문제파악과 실천에 기초적인 방법이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목적과 연구참여에 동의한 여자 기숙사 거주 신입생 4명이다. 가능하면 연구효율상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으므로 여대생, 신입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정했다. 참여자들이 인구 사회학적 면에서 동질적일수록 알고자 하는 경험의 내용이 빠르게 포화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질적 연구 용어사전 2003: 394)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1) 자료수집방법

연구목적과 자원을 부탁하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수집되는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자(스스로 원하는 자)로, 대체로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가능한 면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용하고 다소 밀폐된 장소에서 면담을 하려고 했다. 면접자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동기유발) 면접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서 서면 면접 동의서를 받고, 익명성의 보장과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 이야기도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삭제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자료는 주로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수집되었다. 먼저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떤지, 무엇을 느끼는지, 부모님과 관계는 어떤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았다.

2)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면접에서 녹음한 내용을 필사하여 여러 번 읽으면서 줄분석(line by line analysis)을 하고 줄분석에서 얻어진 하위범주들을 읽으면서 보다 적은 수의 범주들로 정리해 보고 그것들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면접 대상자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 요약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 정리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다음 자료전체를 다시 범주별로 정리하였다. 여러 번의 범주화 과정은 자료에 대한 이해를 보다 증진시켰다.

Ⅲ. 연구결과 요약 및 실천적 함의

본 자료의 분석결과에서 잠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대학 기숙사에서 신입생들이 일상생활을 잘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 가지는 관계(relationship)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로(학교나 학과선택)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관계(relationship)는 관계욕구를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떤 것에서 충족시키는지 하는 것인데 잘 지내는 데(well-being)는 친밀감(cf) 서먹서먹함. 무관심함, 갈등이 있음) privacy(cf)편히 쉬지 못함. 남을 의식해야 함), 안전감(security)(cf)믿을 수 없음. 의지할 수 없음. 불확실함)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할 친구가 있는 것(companionship)이 안정감있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중요했다. 그리고 숙애기를 하거나 생긴대로의 모습으로 관계할 수 있는 친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힘을 주고 힘든 것을 떨쳐 내게 하는 요인이었다. 시간제약없이 밤새 얘기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돌아다니거나 여행가는 것이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았다. 적절한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신경쓰지 않고 혼자있는 것, 혼자다니는 것을 필요로 했다.

진로(학교나 학과 선택)가 결정되었어도 그 결정을 괜찮은 선택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만 공부나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형성노력이나 환경을 탐색하고 익숙해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에 힘을 쏟았다.

1. 학생복리의 증진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잘 지내고 자신의 생활양식을 잘 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특히 전환기동안 가능하다면 부모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집에 자주가거나 부모와 자주 만나거나 부모와 빈번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떨어져 있

지만 부모의 관심이 지속적임을 느끼고 부모와 속애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환기를 잘 지나가는데 필요한 것 같다.

2. 생활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학생 가이드스 모델

그러나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또는 부모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만날 수 없어서(경제적, 시간적 이유) 또는 부모와 만나더라도 다른 이유들로(부모와 갈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부모와 자주 만나고 의사소통이 잘 되더라도 대학에서의 일상 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이 요구되므로(친구사귀기, 진로 정하기 등) 기숙사내에 “이야기방”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 자유로운 것은 좋으나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어 힘들다. 그런데 힘들 때 속애기를 하는 것,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방문이 환영되고(다른 사람이 방에 놀러오는 것이 싫어요. 내공간인데 쉬고싶는데 내 맘대로 못하고 신경써야 해서요.) 대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도움도 제공할 수 있는(생활문제 해결의 조력) 안락하고 편안한 “이야기 방”을 기숙사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러 가지 소집단프로그램의 필요

기숙사생들은 초기에 서먹서먹하고 외로우며 집이 그립고 대화할 사람의 부족하며(속애기 못함),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생활하면서 불편해했다. 그러므로 관계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고, 공통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해봄으로서 스스로 정리해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소집단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 같다. 대화(속애기를 하는 것, 마음을 털어놓는 것)는 일이 힘들 때 어려움을 견디는데 매우 중요했다.(말하면 풀림) 그런데 속애기를 하는 것은 부모나 친한 친구사이에나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숙사생들끼리 친밀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소집단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Marry Applegate & Jannice Morse, 1994: 25-46) 대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공통주제들로는 (1) 룸메이트와의 관계 (2) 학교선택, 과선택(자신이 원하는 것과 관련시켜 검토해보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기, 선택을 확실히 하기 (3) 친구관계, 이성관계 (4)부모와의 관계(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이해하고 주고받은 관계로 조절하기) 등이 있었다.

3) 룸메이트 배정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조정

(1) 공통점을 가질 때 보다 친밀감을 느끼기 쉽고 행동이 이해도 잘되며 서로 편안해하므로 룸메이트 배정시 초기에는 동향(同鄉) 배정이 도움이 될 것 같다.

(2) 룸메이트의 변경: 다른 룸메이트와 생활해보는 것(방학기간등)

여러 유형의 룸메이트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 대인관계 양상을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룸메이트를 보다 이해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도록 하여(비교를 통해 인식이 바뀔) 편안하게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적당한 주기로(사회심리학적으로 근거있는) 룸메이트를 변경하는 것도 괜찮겠다.

3. 대학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책

- 1) 일상생활을 같이 할 동반친구(companion) 형성의 기회 마련 - 편안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수업 같이 듣고 공강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식사 같이하기) 그런데 동반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표를 같이 짤) 그리고 여대에는 한번 집단이 형성되면(끼리끼리) 집단외 인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다소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집단이 형성되는지, 집단 형성에 누락된 학생들에게 집단에 합류하거나 형성할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수업을 같이 들을 친구들을 만나고 사귄 수 있는 기회를 학년 내내 주기적으로 마련해서 오티나 신입생 환영회 등 초기에 친구사귄 기회(집단을 형성하는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사귄 기회를 제공하고 친근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며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 시간표 짜기-시간표 일부를 특정 집단(같은 과, 같은 계열)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짜는 것(좌석지정))
- 2) 새로운 관계문화의 형성과 캠페인 -보다 상호 존중적이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문화의 소개와 확산이 요구된다. (Marry Applegate & Jannice Morse, 1994: 25-46)
- 3) 전공 또는 과단위의 소집단 활동의 활성화(레저활동의 필요)-자유스러움, 친밀함, 낭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과단위의 레저를 포함한 여러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 참고 문헌 〉

- 이문국등. 1999. 사회복지 대백과사전. 1999. Caryl B. Germain & Alex Gitterman, 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서울: 나눔의 집.
- 신경림 역. 1997. 질적 간호연구방법. Janice M Morse & Peggy Anne Field 1995. qualitative

-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명환. 1995. “기숙사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학생생활연구》 10:73-99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종숙. 1986. “덕성여자대학의 기숙사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제안” 학생지도연구(6): 119-134.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조명희. 2003. “서원대학교 기숙사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분석” 《학생생활연구》 21:165-174
- 조명희, 김정숙. 2005. “우리나라 대학기숙사의 실태 분석”. <<과학과 문화>> 우리나라 2(1) 통권 5호: 411-424
- 최귀순. 1997. “여대생의 기숙사 생활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ary Applegate & Janice M. Morse.1994. personal privacy & imnteractional patterns in nursing home. journal of aging studies. vol8(4) 413-434